

업무재조정 신청서

건 명	「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」 참여		
부 서	홍보부	본부장	김 우 진(☎ 7004)
		처 장	김 재 인(☎ 7013)
		부 장	김 영 준(☎ 7014)

[2심 조정결과]

- 우리 공사가 「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」의 후원기관으로서 역할을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 공사를 체계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번 대회 주관을 우리 공사 홍보를 총괄하는 홍보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
 - 다만, 「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」의 후원사로서 홍보관 설치운영, 지속가능한 주택·건축정책 해외수출 플랫폼 구축, KOTRA 등과의 연계 포럼 개최, 예산 지원 등 세부업무는 업무별 부서를 지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[부서 의견]

- UIA 세계건축대회는 전 세계 건축인들이 모여 학술, 문화,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의 의견과 담론을 모으고 통합하는 장으로 3년마다 열려 건축올림픽이라고도 불리우는 건축인들의 축제로서,
- 2017 UIA 대회를 주최하는 서울시는 “도시의 혼”이라는 대회명 아래 “역사문화, 지속가능성, 그리고 기술”을 주제로 전세계 건축관련 공공 및 민간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을 만들고 서울시의 주요 건축, 도시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므로, 우선 위와 같은 대회의 성격 및 취지를 감안하여 업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,
- 서울시가 우리공사에 협조요청한 사항 중, “주택정책 홍보관 설치업무”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홍보부에서 총괄은 가능하나, 그 외의 “대회 후원을 위한 예산지원”, “대회 기간중 해외도시수출 포럼 개최”, “수출관련 해외출장시 대회 홍보”, “주택·건축정책 해외수출 플랫폼 구축”, “현장투어 코스개발 참여” 등 업무는 2심 조정결과와 같이 업무부서를 따로 지정해야 하고,
- 앞으로 금번 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서울시 주관부서인 건축기획과와 계속적으로 업무협의 및 회의를 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, 홍보부에서 금번 대회를 주관하며 위와 같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.

- 아울러, 2011~2012년 개최한 “한국건축산업대전”은 당시 사업2본부 마곡사업단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홍보부는 행사 지원(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프로모션 등)한 것이고, 2014년 개최한 “베를린 에데스갤러리 공공건축전시회”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협조요청에 따라 홍보부에서 전시물 반입/반출 운반비를 지원했을 뿐 행사를 주관한 것은 아님.

[처리부서 및 근거]

- 처리부서 : 건설안전사업본부 건축기술부
- 판단근거 : 본 대회는 건축인들의 축제로서 2017 UIA 대회를 주최하는 서울시의 주관부서가 건축기획과이므로 업무 파트너로서 우리공사 건축총괄부서(건축기술부)에서 본 대회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.